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김혜진 경북 도송중 사회 교사의 거꾸로 교실
알쏭달쏭 정치 개념도
몸으로 경험하며 익히면 쏙쏙

민주주의, 대통령제, 입법부, 행정부... 알고 보면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정치 개념도 교과서를 통해 만나면 추상적이고 어렵기만 하다. 더욱이 정치 과정을 접해 본 경험 자체가 적은 중학생에게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와 같은 교과서의 설명은 정치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김혜진 경북 도송중 사회 교사는 “정치 주체에 대해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 줘도 학생들은 이내 입법부가 곧 국회라는 사실조차 헛갈려 하곤 했다”면서 “설명만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정치 주체별 역할을 맡긴 후 직접 정치 과정을 수행해보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 국가라는 무대를 ‘학년’으로 옮긴 6차시 분량의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맡아 학급을 위한 정치 과정을 수행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따른 정부 형태를 각각 구성하여 정치 주체별로 역할을 맡아 수행해보면서, 두 정치 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수업 개요

| | | | | | |
|--------------|--|----|---------|----|-----|
| 교과 | 사회 | 학기 | 1학년 2학기 | 차시 | 6차시 |
| 단원 | 9.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10.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 | | | |
| 주요 핵심성취기준 | <p>[9사(일사)03-03]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 형태(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p> <p>[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p> <p>[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p> | | | | |
| 수업 내용 | <p>1. 우리 학급을 위한 대통령 선출하기</p> <p>2. 모둠별로 대통령제 내 정치 주체 역할 맡아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p> <p>3. 모둠별로 의원내각제 내 정치 주체 역할 맡아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p> | | | | |

| | ▼ 디딤영상 | | | | ▼ 디딤영상 | |
|----|-------------|---------------------|-------------------|---------------------|----------------------|--------------------|
| 차시 | 1 | 2 | 3 | 4 | 5 | 6 |
| 수업 | 학급 대통령 선출하기 | [대통령제] 정치 주체 역할 나누기 | [대통령제] 정치 과정 참여하기 | [대통령제] 정치 주체 역할 나누기 | [의원내각제] 정치 주체 역할 나누기 | [의원내각제] 정치 과정 참여하기 |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된 디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1차시 수업으로 학급 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됨을 알려주고, 학급을 위한 공약 등을 생각해 오도록 사전 안내 한다.



[1차시] 대통령 선거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급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이 때 대통령은 학급을 하나의 국가로, 학급 구성원을 국민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입후보가 완료되면, 대통령 후보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공약을 발표하며 유세를 한다. 후보 간 공약 발표가 끝나면, 선거의 4대 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을 상기하며 실제 선거를 진행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2차시] 정치 주체 정하기

모듬별로 각자 맡을 정치 주체를 정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은 필수적으로

한 모둠씩 맡고, 모둠 수가 5개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등을 선택해 맡는다.

정치 주체 역할 분담은 민주적으로 정한다(단, 대통령이 선출된 모듬은 무조건 행정부를 맡는다). 모듬별로 행정부를 제외한 정치 주체 가운데 1~3지망을 정한 후, 1지망이 같은 모듬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역할 분담이 끝나면 각 모듬이 맡은 역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듬별로 네임텐트(명패)를 만들어 세워둔다.

이어서 모듬 내 역할 분담도 진행한다. 교과서와 디딤영상을 참고해 각 정치 주체별로 세부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맡을 사람을 모듬 내에서 정하는 것이다. 보통 행정부에선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입법부에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사법부에선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나온다. 언론과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도 각각의 정치 주체가 하는 역할을 참고해 모듬원별 세부 역할을 정한다(이 때 각 모듬에서 1명은 꼭 모듬원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서기를 맡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역할을 제시하거나 정해주지 않는다. 학생의 질문은 받아주되, 궁극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정치 주체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고 선택하게 한다.

[3-4차시] 대통령제-정치 주체별 역할 수행하기

3, 4차시는 본격적으로 정치 과정을 간접 경험해보는 시간이다. 우선 입법부는 '지각을 하면, 그 별로 청소를 맡는다'와 같은 학급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존재하는 학급 규칙 가운데 개정이 필요하거나 삭제가 필요한 규칙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국민(학급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살펴본다. 그 외 행정부의 모듬원은 각 부처의 성격에 맞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학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 규칙을 고민한다. 예컨대 교육부는 우리 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식이다. 논의 도중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입법부로 가서 해당 내용을 법률(규칙)로 입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입법이 완료된 법안에 대해 수업시간 외에 담임교사에게 건의하고,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사법부는 물건 분실, 친구간의 다툼 등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쟁 당사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성격을 구분해 사법부에 고소 및 소송을 걸면 판사는 재판이 가능한 시간을 정해 칠판에 적어 예고한다.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그 시간에 맞춰 재판 준비를 하고 예고한 시간이 되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 판결한다. 검사와 변호사가 사건을 정리하는 동안 판사는 재판 전, 판결에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입법부로 가서 관련 법안을 빨리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언론은 매 수업 종료 5분 전마다 칠판 앞에 나가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정리한 뉴스를 보도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을 맡은 모듬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한다.

그 외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격에 따라 학급 전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이익집단은 '공익이 아닌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격에 따라 자신의 모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각자 생각해 낸 방안을 법률이나 제도로 보장하도록 입법부나 행정부에게 요구한다.



정치 주제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를 맡은 모듬이 학교 규칙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법부 역할을 맡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고소(소송)가 제기된 사건을 정리해 작성한 소송기록부. 도송중 제공

[5-6차시] 의원내각제-정치 주체별 역할 수행하기

대통령제에 따른 정부 형태와 정치 참여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꿔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해 본 모듬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듬 중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구성한다. 국회의원을 맡은 학생들끼리 모여 별도의 선거 없이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선출된 총리는 국회의원 가운데 함께 일하고 싶은 학생을 일부 골라 행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은 3-4차시에 정리된 규칙을 모아 법전을 만든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듬별로 사법부, 언론 등 역할을 정해 앞서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앞서 진행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가 바뀌는 5-6차시 수업을 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정치 참여 활동을 마무리 한 후에는 1차시 때 본 디딤영상을 다시 보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교사의 관찰평가 및 모듬 내 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활동 및 참여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로젝트 평가 채점기준 예시〉

- 선거의 기능을 알고,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켜서 선거 활동에 공정하게 참여함.
- 정치 주체별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정치 과정에 올바르게 참여함.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임을 알고 있음.
- 프로젝트 진행에의 기여도가 높고, 타인과 활발하게 의견 교환을 함.

“수업 맡겨도 될까?” 두려움 떨쳐야

Q. 학생 주도 수업, 운영에 어려움은 없나?

교사가 학생에게 역할 수행에 대한 틀을 정해주는 순간 생각이나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쉽다. 또한 교과서를 찾아보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든 학생이 스스로 노력해 찾아야 그 내용이 비로소 학생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학생 본인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가며 하도록 설계했다.

교사만 두려움을 떨치면 생각보다 학생들은 알아서 잘 해 나간다. 물론 교사가 틀을 제시해주는 상황에 익숙한 학생 중 일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교사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제안하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Q. 이 수업의 효과는?

정치는 결코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 정치 과정의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 한 번만 경험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정치를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낄 뿐이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정치 주체가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정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다.

각자 맡은 역할을 바탕으로 학급의 규칙을 바꾸거나 학급 내 분쟁을 해결 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학급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에 대한 이해와 단합심도 높아진다.

Q. 3, 4차시와 5, 6차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과정을 한 차시로만 끝내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각자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활동까지 소화하려면 2차시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블록타임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신 2차시의 시간을 통으로 학생 자율에 맡길 경우 자칫 활동이 늘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둠 역할 정하기 △세부 역할 분담 △주체별 활동 △정리활동(재판, 뉴스보도 등) 등 10분, 2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활동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Q.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어떻게 유도하나?

자유학기 동안 진행된 수업이라서 별도의 평가는 없지만 학생 각자가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며, 수업 전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공지한다.

하지만 꼭 이 점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각 모둠마다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서기가 있고, 학급 전체로 보면 언론이 각 주체의 활동을 취재·감시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학급에 따라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Q. 제언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3~4차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정치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끼리 지식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모둠별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정치 주체를 하나씩 맡아 역할과 주요 활동에 대해 공부를 한 후 돌아가면서 다른 모둠에게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각자 궁금한 점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 다 함께 학습 내용을 공유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김혜진/경북 도송중 사회 교사